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구조대가 시리아 이민자를 구조해 옮기고 있다. 아디아만=AP/뉴스시



지난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디아만에서 주민들이 지진 희생자 시신을 집단 매장하고 있다. 아디아만=AP/뉴스시

튀르키예 역대 최대 지진, 지구촌 흔들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지난 6일(현지시간) 오전 4시17분쯤(현지시간) 7.8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7.20도, 동경 36.9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4km이다. 이날 지진은 첫번째 지진 발생 15분 후 6.7 규모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인근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프러스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의 큰 규모였다. 사망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12일 그간 강진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파악된 사망자 수는 13일 기준 3만3179명에 달한다. 지진 발생 직후 한국에서도 긴급구조대를 파견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에서도 구조대를 파견해 귀한 생명을 구조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진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튀르키예기업연맹은 이번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 가치만 708억달러(약 90조원)이며, 여기에 더해 국민소득도 104억달러(약 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주의 1350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만큼 노동력 손실도 29억 달러(3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SnackNews #튀르키예지진 #김은지기자 #최홍은편집디자인



기고 김수연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코로나19와 함께한 3년의 교훈

지난 6일이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3년을 요약하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3년 전 첫 환자 발생 때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정보조차 없이 진단방법도 변변치 않았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진료를 거부하며 그렇게 코로나 19는 시작했다.

전남 첫 확진자 발생 후 그해 8월 동부 권에서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 발생이 접수됐다. 이어 동·서부권에서 반복됐다. 전남도는 방역목표를 확진자 발생 최대한 억제에 두고 3T(Testing·Tracing·Treatment)와 사회적 거리 두기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2021년 2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대응하게 했다. 치명률은 낮아졌으나 전파력이 높아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방역목표를 고위험군 중증이 환과 사망 예방, 지속 가능한 일반의료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러던 중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제공되면서 치명률도 낮아져 4월에 제1급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이후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출현하고 있으나 방역자원으로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현재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다. 그간의 노력 덕택에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같은 성과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다. 지난해 2월 시작한 기초접종부터 동절기 추가접종까지 총 5회 예방접종이 있었고 전남은 매번 전국 최고 접종률을 기록했다.

둘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했다. 도와 전남도의회, 전남요양병원협회 협력을 통해 치료제 처방을 독려했으며 그 결과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처방률(전남 35.8%·전국 30.7%)을 보였다.

셋째, 도민의 참여 방역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졌다. 확진자뿐 아니라 접촉자도 격리돼 일상을 멈춰야 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지인과 모임이 제한됐다. 명절 고향 방문조차 포기해야 했음에도 도민들 역시 기꺼이 동참해줬다.

코로나19 출구가 가까워졌음을 사회적 분위기로도 느낀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았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해야 하고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났던 문제도 돌이켜 봐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3밀 환경과 환기시설 기준 부재, 보건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인력 기준 부재,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시설(음압 격리병상 등) 부족 등이다.

아무런 전조없이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가 닥치는 경우는 없다.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후 발생할 급성호흡기 감염병 전조로 이해하고 차질 없이 대비해야 제2, 제3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닝 소파석 (키보드보호)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명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 - 오후 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드림플러스파크리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 (해당 주차 대역 한정)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교섭
2관	타이타닉 /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3관	타이타닉 / 아바타: 물의 길
4관	우리 사람이 향기로 남을 때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몬스터 하우스2:인비저블 피닉스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메간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8관	영웅 / 교섭 / 상견니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9관	영웅 / 다음 사회 / 유행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